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교육 내용	04
☺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English Bible Study	28
☺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9
어린이 QT God's Time	60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8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9
☺ 편편 플레이	
틀린 그림 찾기	70
미로 찾기	71
☺ 위드큐티스티커	73
위드포토	74
☺ 교육활동지	76



암송 구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첫째주♥

“크리스천의
황금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둘째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누가복음 10장 37절)

*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해요.

♥셋째주♥

“이웃에게 양보하며
솔선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 이삭과 예수님의 사랑과 솔선을 기억하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넷째주♥

“세상의 빛”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
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 착한 일에 앞장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요.

♥다섯째주♥

“모르드개 의 용기”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 3장 2절)

* 모르드개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요.

실천 내용

1. 내가 먼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2. 착한 일을 앞장 서서 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려요.

9월 첫째주
2018년 9월 2일~8일



Memory Time



크리스천의 황금률

첫 번째 주

♥ 주제 : 솔선

♥ 암송구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31

♥ 성경 이야기 : 크리스천의 황금률 ▷누가복음 6:28-38

♥ 오늘의 포인트 :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내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8절)
- ② 남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31절)
- ③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2절)
- ④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꾸어 주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4절)
- 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가장 큰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보석으로 따지자면 마치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기에, 사람들은 이 규칙에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황금률은 바로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먼저 우릴 사랑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혹 상대방이 자격이 없고 심지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에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술선’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술선하여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먼저 섬길 수 있는 술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Pray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이사야 35:1-10 “하나님을 찬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2.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 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3.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4.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5. 그 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 그 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허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7.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맥:

힘을 쓰지 못하다

승냥이:

개과의 야생 육식동물

왕골:

사초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1-2m 정도이며,
잎은 선형, 줄기의 단면
은 삼각형임



with
관찰

1. 말씀에서는 무엇이 기뻐하며, 어떤 것이 즐겁다고 하였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 와 메마른 이 기뻐하며,
 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2.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해야 해요. 말씀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 칠 것이다. (2절)
②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4절)
③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귀가 먹을 것이다. (5절)
④ 다리를 절단 사람이 사슴처럼 뛰다. (6절)

with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피어날 거예요.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귀가 들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지막 날에는 기뻐하며 즐겁게 될 거예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아주 좋은 것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따라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빨리 오셔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세요.
나의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6:1-12 “조롱당하는 유다”

1. 히스기야 왕 제 십사년에, 앗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2. 그래서 앗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3. 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4.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 하나?'
5.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6.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찢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7.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궁내대신 :

궁중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벼슬

서기관 :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



with
관찰

1. 히스기야 왕 제 십사년에 누가 와서 견고한 유다 성읍을 공격하였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히스기야 왕 제 십 사년에, 앗시리아 왕 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2. 앗시리아의 랍사게는 자신의 힘을 믿고 유다를 조롱하였어요.
말씀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 틀린 것은?

- ①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 하나? (4절)
- ②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5절)
- ③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찢리게 될 것이다 (6절)
- ④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세운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7절)

with
생각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공격으로 유다는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랍사게는 오직 항복하라고만 했어요. 유다가 도움을 구한 이집트까지도 소용없을 거라고 조롱하고, 유다가 신뢰하는 하나님 또한 소용없다고 조롱했어요.

with
결심

랍사게는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도움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때때로 이 랍사게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예배드리지 말고 좀 더 자는 거야, 밥 먹을 때에 식사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놀릴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6:13-22 “랍사게의 착각”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4.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15.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7.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18.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못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도성 :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성읍으로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의미

with
관찰

1.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요?
말씀을 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주세요.(13절)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의 임금님께서 하시든 말씀을 들어라!”

2. 랍사게는 앗시리아의 임금에게 오면,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너희는 감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16절)
- ②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6절)
- ③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17절)
- ④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17절)

with
생각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보다 앗시리아를 의지하면 유다 백성들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어요. 새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앗수르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랍사게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앗시리아를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7:1-7 “히스기야 왕의 믿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2. 그는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3.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 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4.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앗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5.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앗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7.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뜯소문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베옷 :

값싼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거칠고 검은 옷이나 천

환난 : 근심과 재난

징계 :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

뜯소문 :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with
관찰

1.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히스기야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을 찢고,
 을 두르고, 주님의 으로 들어갔다.”

2.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7절)

“내가 그에게 한 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뜰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할 것이다.”

with
생각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 했어요. 그리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또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 유다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 말고, 앗시리아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은 큰 제국이었던 앗시리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해 보아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기도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누가복음 6장 31절 -





9월 둘째주
2018년 9월 9일~15일



Memory Time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세 주

♥ 주제 : 술선

♥ 암송구절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37

♥ 성경 이야기 :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누가복음 10:25-37

♥ 오늘의 포인트 :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술선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9절)
- ②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0-35절)
- ③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술선’과 연결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7절)

★ 교육 활동 -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 ① 활동지에 있는 네 가지 상황을 보고,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 ②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 ③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나를 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술선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 ④ 선생님의 기도로 성경공부를 마쳐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느 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의 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다가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제사장, 다음은 레위인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못본척 했어요. 얼마 후,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다친 부분을 치료해주었고, 편안하게 쉬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주었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비용은 자신이 내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율법교사는 “친절을 베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을 ‘술선’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술선하여,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와 친절을 베풀어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술선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운데 우리 가정이 술선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Pray 우리 가정이 말씀을 실천하며 술선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7:8-20 “산헤립 왕의 교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15. 주님께 기도하였다.
16.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17.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18. 주님, 참으로 앗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19.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앗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20.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만군:

많은 군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

망언: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 말

with
관찰

1. 히스기야는 산헤립 왕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였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4-15절)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하였다.”

2.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였어요. 기도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 ②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랍사게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17절)
- ③ 참으로 앗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18절)
- ④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19절)

with
생각

산헤립 왕은 랍사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만약 유다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멸망당 할 거라고 헐박했어요. 앗시리아의 왕인 그는 유다를 멸망시킬 힘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유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with
결심

산헤립 왕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강한 군사들과 아주 많은 돈을 가졌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산헤립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7:21-38 “모압 심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0.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31.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32.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열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3. 그러므로 앗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34.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 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35.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난 :
 '난리(亂離)'의 준말

토성 :
 흙으로 쌓아 올린 성루

명성 :
 세상에 널리 떨친 이름,
 세상에 알려진 좋은 평판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를 위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30절)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을 먹을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앗시리아 왕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은? (33절)

- ① 그는 이 도성에 들어와 함께할 것이다.
- ② 이리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 ③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한다.
- ④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에게 화를 내셨어요.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와 반대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풍성한 곡식을 주셨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with
결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앗시리아의 왕이 자신을 공격하여 곧 죽을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8:1-8 “하나님의 응답”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2.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3.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뵙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4. 그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6. 너와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7.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 주겠다.
8.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십 도 올라갈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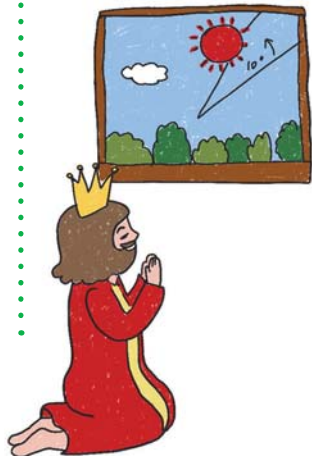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흐느끼다:

몹시 서럽거나 감격해서

흑흑느껴올다



with
관찰

1.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못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내가 너의 목숨을 열어섯 해 더 연장시키겠다. (5절)
- ② 너와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겠다. (6절)
- ③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갈 것이다. (8절)
- ④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깊을 때 옳은 시이다. (9절)

with
생각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이 두렵고, 무서워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한참동안 흐느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이나 늘려주셨고, 앗시리아 왕에게서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 왕은 병 때문에 곧 죽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어요. 무려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고 기도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8:9-22 “히스기야의 고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생략]
-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낮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줍니다.
-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낮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읊다 :

소리를 내어 운에 맞춰

시를 읽거나 외다



with
관찰

1.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을 때에 무엇을 하였나요? (9절)

“□를□□다.”

2. 히스기야 왕의 고백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16절)
- ②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7절)
- ③ 스올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 ④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줍니다. (19절)

with
생각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았을 때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읊었어요.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빼앗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주심에 감사해요.

나의 기도 : _____



느헤미야 2장 11-18절 (새번역) / Nehemiah 2:11-18 (NIRV)

initiative—Seeing what needs to be done and doing it
솔선-필요한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

11.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12.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13.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 샘'을 지나 '거름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14.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15. 그래서 그 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16. 그 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17.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 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8.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 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11. I went to Jerusalem and stayed there for three days.
12. Then at night I took a few other people with me to check out the walls. I hadn't told anyone what my God wanted me to do for Jerusalem. There weren't any donkeys with me except the one I was riding on.
13. That night I went out through the Valley Gate. I went toward the Jackal Well and the Dung Gate. I checked out the walls of Jerusalem. They had been broken down. I also checked the city gates. Fire had burned them up.
14. I moved on toward the Fountain Gate and the King's Pool. But there wasn't enough room for my donkey to get through.
15. It was still night. I went up the Kidron Valley. I kept checking the wall. Finally, I turned back. I went back in through the Valley Gate.
16. The officials didn't know where I had gone or what I had done. That's because I hadn't said anything to anyone yet. I hadn't told the priests or nobles or officials. And I hadn't spoken to any other Jews who would be rebuilding the wall.
17. I said to them, "You can see the trouble we're in. Jerusalem has been **destroyed** . Fire has burned up its gates. Come on. Let'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Then people won't be **ashamed** anymore."
18. I also told them how my gracious God was helping me. And I told them what the king had said to me. They replied, "Let's start **rebuliding**" So they began that good work.

Vocabulary

Destroy-파괴하다

Ashamed-수치를 당하다

Rebuilding-다시 짓다, 다시 건축하다

ENGLISH BIBLE STUDY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17. I said to them, “You can see the trouble we’re in. Jerusalem has been D_____. Fire has burned up its gates. Come on. Let’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Then people won’t be A_____ anymore.”

18. I also told them how my gracious God was helping me. And I told them what the king had said to me. They replied, “Let’s start R_____.” So they began that good work.

Interpretation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직접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둘러보며 확인하였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사람들은 힘을 합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 하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을 했지요. 느헤미야 덕분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수리되기 시작했답니다.

Application

Think about this for a second. Nehemiah's job WASN'T construction, was it? He was the king's drink taster. Really, Nehemiah's real job wasn't anywhere close to building things—especially humongous city walls. But Nehemiah did something that wasn't his responsibility. He took initiative, and he did something to fix the problem that he saw.

“You can take initiative, too! You don't have to wait around for someone else to do what needs to be done. Try to take initiative like Nehemiah did!.

사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드는 관원이었지 건축가가 아니었지요. 건물을 다시 짓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이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답니다. 우리도 나의 책임이나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일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내는 느헤미야같이 멋진 사람들이 되어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Colossians 3:23a

골로새서 3장 23절 상반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Work at everything you do with all your heart. Work as if you were working for the Lord.”

- Colossians 3:23a, NIRV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누가복음 6장 31절 -





9월 셋째주
2018년 9월 16일~22일



Memory Time



이웃에게 양보하며 술선해요

셋째 주

♥ 주제 : 술선

♥ 암송구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 성경 이야기 이웃에게 양보하며 술선해요 ▷창세기 26:12-22

♥ 오늘의 포인트

이삭과 예수님의 사랑과 술선을 기억하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12절)
- 2 그 복으로 인해 이삭은 어떻게 되었나요? (13절)
- 3 블레셋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며 어떤 행동을 했나요? (15-16절)
- 4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다시 찢던 우물들의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요? (20-22절)
- 5 그랄(블레셋)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룰 때 이삭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26장 2-3절, 20-22절)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약 20~50배 만 수확해도 농사가 잘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훔으로 메워버리고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말하면서 번번이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다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양보해 주었어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한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만약, 이삭이 경험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 나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베풀며 양보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양보해주셨어요. 양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술회했던 이삭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술회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Pray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며 술회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39:1-8 “하나님만 생각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 왔다.
2.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다.
3. 그 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4.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 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 갈 것이다.' 주님께서서 또 말씀하십니다.
7.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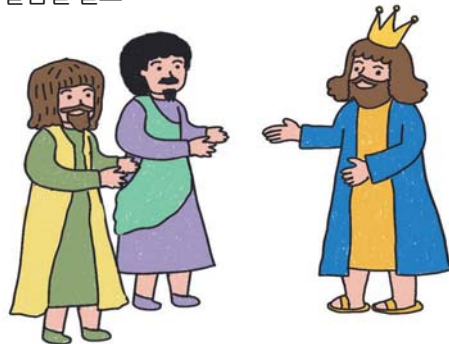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친서 :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의 원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

환관 : 내시



with
관찰

1. 바빌로니아의 왕 므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왕에게 무엇을 보내왔나요? (1절)
“...왕 므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와 을 보내 왔다.”

2.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었나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2절)
- ① 은과 금
 - ② 향료와 향유
 - ③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
 - ④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with
생각

히스기야 왕은 몸이 낫고, 나라가 평안을 찾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그 때 마침 바빌로니아의 왕이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죠.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와 궁궐 등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몸을 낫게 해주시고, 나라가 평안해 지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보다는 바빌로니아와 친해지고 싶어 했죠. 이러한 잘못을 우리도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기도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래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40:1-9 “하나님께 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에서 받았다고 외쳐라."
3.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길을 곧게 내어라.
4.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5.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6.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7.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갑절: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침, 배(倍)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절)

“너희는 하여라! 나의 백성을 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한 소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3절)
- ②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쌓아라. (4절)
- ③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5절)
- ④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8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었어요. 바빌로니아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를 단숨에 쳐서 무너뜨린다고 하셨어요. 이 바빌로니아는 풀과 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입김을 부셔서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세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육체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예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40:10-31 “크신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0.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11.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12.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뱀**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 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13.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14.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15. 그에게는 못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과의잔뜩 벌린 거리

티끌:

티와 먼지, 분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처세술:

남과 사귀면서 세상을 살아
 가는 방법과 수단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끄는 기구



with
관찰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1절)

“그는 와 같이 그의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들을 팔로 모으시고,
포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을 보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릴 수 있는 분 (12절)
- ② 뺨으로 하늘을 짚 수 있는 분 (12절)
- ③ 영을 헤아릴 수 없는 분 (13절)
- ④ 모든 것을 깨우쳐서 공평의 도리를 아시는 분 (14절)

with
생각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리며, 손바닥 한 뺨으로 하늘을 짚어 보고, 온 땅의 티끌을 그릇으로 담아보고, 산을 어깨 저울로 달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with
결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삼아 내세우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해요. 우리 모두 항상 크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41:1-20 “하나님의 권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 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평가름하여 보자.
2.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3.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4.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 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5.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떠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6.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7. 대장장은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송사:

백성끼리의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

정복자: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복종시킨 사람

검불:

마른 풀이나 낙엽, 지푸라기 따위의 부스러기

도금장이:

변이나 해변의 모래나 자갈 속에 섞인 알맹이나 비늘 모양의 금을 골라내는 사람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이, 를 가져 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하여 보자.”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을 보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고, 승리하게 하신 분 (2절)
- ②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5절)
- ③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떠난다 (5절)
- ④ 그들은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서로 격려한다 (6절)

with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라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올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가져갈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갈
권리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우리의 것을
가져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 죄에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누가복음 6장 31절 -





9월 넷째주
2018년 9월 23일~9월 29일



Memory Time



세상의 빛

네
사랑해주

♥ 주제 : 솔선

♥ 암송구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 성경이야기 세상의 빛 ▷마태복음 5:13-16

♥ 오늘의 포인트 착한 일에 앞장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14절)
- 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나요? (16절)
- ③ 내가 먼저 앞장서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도와준 후에 기분은 어땠나요?

★ 교육활동 - “나는 세상의 빛”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 ①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 ② 빈 공간 속에 어떤 빛이 되고 싶은지 자유롭게 적어 보아요.
ex)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빛, 착하게 살아가는 빛 등
- ③ 활동지를 완성한 후, 반 친구들과 어떤 빛이 되고 싶은지 나누어요.
- ④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우리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빛은 가야할 길을 밝게 비추어주고, 동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그만큼 '빛'은 절대 없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빛인 우리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해요. 등대는 어두운 바다를 밝게 비추어 배가 바닷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처럼 우리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술선수범하여 생명을 돕고 살릴 수 있어야 해요. 식물은 빛을 통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고 생명을 유지해요. 빛이 생명을 돕고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도울 수 있어야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로 친구들을 인도하고,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길 축복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착한 행실을 앞장서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41:21-29 “헛된 우상”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22.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23.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24.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25.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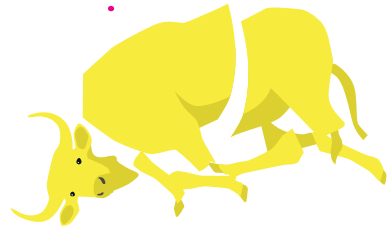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소송 :
재판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혐오 :
싫어하고 미워함



with
관찰

1.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것은? (21절, 23절)
 - ①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21절)
 - ②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21절)
 - ③ 너희는 장차 올 일들을 이미 다 알기에, 말하지 말라. (23절)
 - ④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23절)

2.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6절)

“참으로 너희는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이니, 너희를 섬겨 하는 자도 스러울 뿐이다.”

with
생각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은 가짜 신으로서,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달리,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은 그저 모형에 불과했으니까요.

with
결심

가짜이고, 모형에 불과한 이방나라의 우상들은 이방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진짜 신이시지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42:1-9 “예언되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 그는 소리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3.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4.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5.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서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6.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7.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8.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9.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낙담:

너무 놀라간이 떨어지는 듯하다는 뜻으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이롭지 않음

언약: 말로 약속함

영창: 감옥



with
관찰

1.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2절, 3절)
- ①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2절)
 - ②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3절)
 - ③ 그는 꺼져 가는 등불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3절)
 - ④ 그는 진리로 공의를 베풀 거예요. (3절)

2. <보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써놓은 것은? (5절)

<보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하여 펴시고, ()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에게
()을 주시고, 땅 위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에게 ()을 주셨다.”

- ① 창조⇒백성⇒생명⇒땅⇒목숨 ② 백성⇒땅⇒생명⇒생명⇒목숨
- ③ 창조⇒땅⇒백성⇒생명⇒목숨 ④ 창조⇒생명⇒목숨⇒땅⇒백성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의 약한 모습’을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예언은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약한 모습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씻음 받아 당당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한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내가 될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42:10-25 “찬양하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0.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과,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11.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과,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과,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12.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13.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15.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항페**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16. 눈 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부락:

시골에서 여러 민가(民家)가 모여이룬 마을

용맹:

용감하고 사나움

해산:

아이를 낳음

항페:

집, 토지, 삼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 쓰게 됨

광명:

밝고 환함

평탄:

바닥이 평평함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12절)

“주님께 을 돌려라.

주님을 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2.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비유된 인물이 아닌 것은? (13절, 14절)

① 용사 (13절)

② 전사 (13절)

③ 대적 (13절)

④ 해산하는 여인 (14절)

with
생각

주님께서는 찬양받기를 기뻐하세요. 찬양은 주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노래로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할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with
결심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찬양은 무엇이 있나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결심해요. 또한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찬양으로 마음껏 표현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43:1-10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2.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3.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쓰바를 내주겠다.
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5.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속량 :
 속죄. 죄를 씻어 구원함.

침몰 :
 물속에 가라앉음



with
관찰

1.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절)

“내가 너를 하였으니,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하여 불렀으니, 너는 이다.”

2. 해당 문장에 이어질 문장은 무엇인지 연결해보세요. (2절)

- A.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 B.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 내가 너와 함께 한다.
- C.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with
생각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현대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말씀 하시며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누가복음 6장 31절 -





9월 다섯째주
2018년 9월 30일~10월 7일



Memory Time



모르드개의 용기

다섯째 주

♥ 주제 : 솔선

♥ 암송구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 3:2

♥ 성경이야기 모르드개의 용기 ▷에스더 3:1-6

♥ 오늘의 포인트 모르드개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의 지위를 높이 올렸나요? (1절)
- ②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던 신하들과 달리 모르드개는 어떻게 했나요? (2절)
- ③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자 모르드개가 무엇을 알렸나요? (4절)
- ④ 하만은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나요? (6절)
- ⑤ 모르드개와 같이 주위의 상황이 어려워도 솔선한 적이 있나요? 함께 이야기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모르드개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유대인이자,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의 궁궐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르드개가 궁궐 문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모르드개는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하수어로 왕이 알 수 있도록 하였어요.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었어요.

이 일이 있는 후에, 아하수어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의 다음가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하만은 우쭐해서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더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했죠. 하지만 모르드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이를 보고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 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대인도 모두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모르드개는 왜 하만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개는 왕의 다음가는 권력자인 하만의 명령에도, 누구보다 용기 있게 숭선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르드개의 숭선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만의 계획을 깨치고 모르드개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또한 모르드개를 하만을 대신하여 왕의 다음가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숭선을 지켜보고 기뻐하세요.

토론하기

Q1.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숭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Pray 하나님 앞에서 숭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18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43:11-28 “유일한 구원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12.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3.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 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14.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15.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장악:

손안에 잡아 쥐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

성문 빗장:

성의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



with
관찰

1. 해당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요? (11절, 12절)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하였고, 을 선언하였다.”

2.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절)

①주 ②이사야 ③이스라엘의 창조자 ④왕

with
생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죄에 묶인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은 없어요.

with
결심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주로
고백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이사야 44:1-17 “이스라엘아 들어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2.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3.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4. 그들은 마치 시냇물 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5.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6.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7.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무성(하다) :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다

선언 :

널리 퍼서 말함



with
관찰

1.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야곱과 여수론에게 하신 말씀은? (2절)

“□□□ 하지 말아라.”

2.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6절)

“나는 □□이요, □□이다. 나 밖에 다른 □이 없다.”

with
생각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명령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 꼭 알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살기로 다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랑을 기억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45:1-7 “내가 만든 우상”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8.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 그런 사람에게에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20.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21.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22.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 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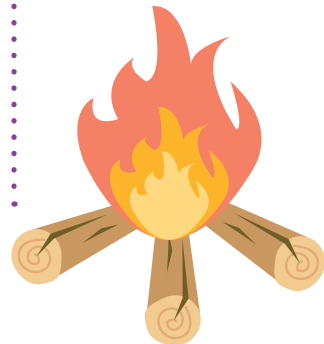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가증(하다):

괘씸하고 알미움

미혹: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with
관찰

1.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절)

“그들의 이 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엇처럼 없애주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22절)

“내가 너의 죄를, 을 거두듯 없애 버렸으며,
너의 죄를 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with
생각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나무를 떼던 뿔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우상은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허무한 물건일 뿐이에요. 위대한 신이나, 높임 받아야 할 존재도 아니지요. 나에게도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있나요?

with
결심

우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허무한 물건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일일까요? 우리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만들어낸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우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가 만든 허무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이사야 45:1-7 “고레스 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놋쇠 성문을 부수며, 쇠빛장을 부러뜨리겠다.
3. 안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 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5.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6.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7.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굴복 :
힘이 모자라서 복종함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어느 왕에게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겠다’ 말씀하셨나요? (1절)

“ 기 르 스 ”

2. 해당 문장에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7절)

<보기>

과자, 빛, 기쁨, 슬픔, 미움, 평안, 게임,
어둠, 인형, 재앙, 사랑, 별, 싸움

“나는 ()도 만들고 ()도 창조하며,
()도 주고 ()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고레스 왕을 위대한 자로 만드셨어요. 주변나라를 제압하는 능력, 돈과 보물을 가득 주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어, 그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즉,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예요.

with
결심

고레스 왕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들이예요. 또한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의 기도 :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아래의 시를 읽어주세요.
3. 시를 읽어준 뒤,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친구야 나에게 기댈래? _ 조미하

난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걱정스레 묻더라

“어디 아파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

부담을 줄까 봐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남몰래 아파하고 고민했던 거 같아
한 번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댈 수도 있는데

친구야
너는 나에게 기댈래?
내 작은 어깨도 괜찮으면
언제든 내줄게

기대고 울어도 좋고
말없이 있어도 좋아
그것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테니까

OO(이)야, 우리는 OO(이)에게 오늘의 시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혹시 나 요즘 OO(이)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니? 또는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대도 좋아. 우리는 OO(이)를 언제나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거든.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더 계셔.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OO(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 그렇기에, 만약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보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거란다. OO(이)야. 혼자라 생각하지 마렴. 너의 곁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너의 편에 서서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사랑해.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와 함께 아래의 찬양을 부르거나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야_전국주일학교연합회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릴 만드신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릴 사랑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예수님 닮은 아이 되게 하심

OO(아)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란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말이야. 얼마나 멋진 일이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하시니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들로서 살아간 다니 자랑스럽고 뿌듯해! OO(이)야, 우리 더 크게 찬양하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임을 세상에 전하자!

FUN FUN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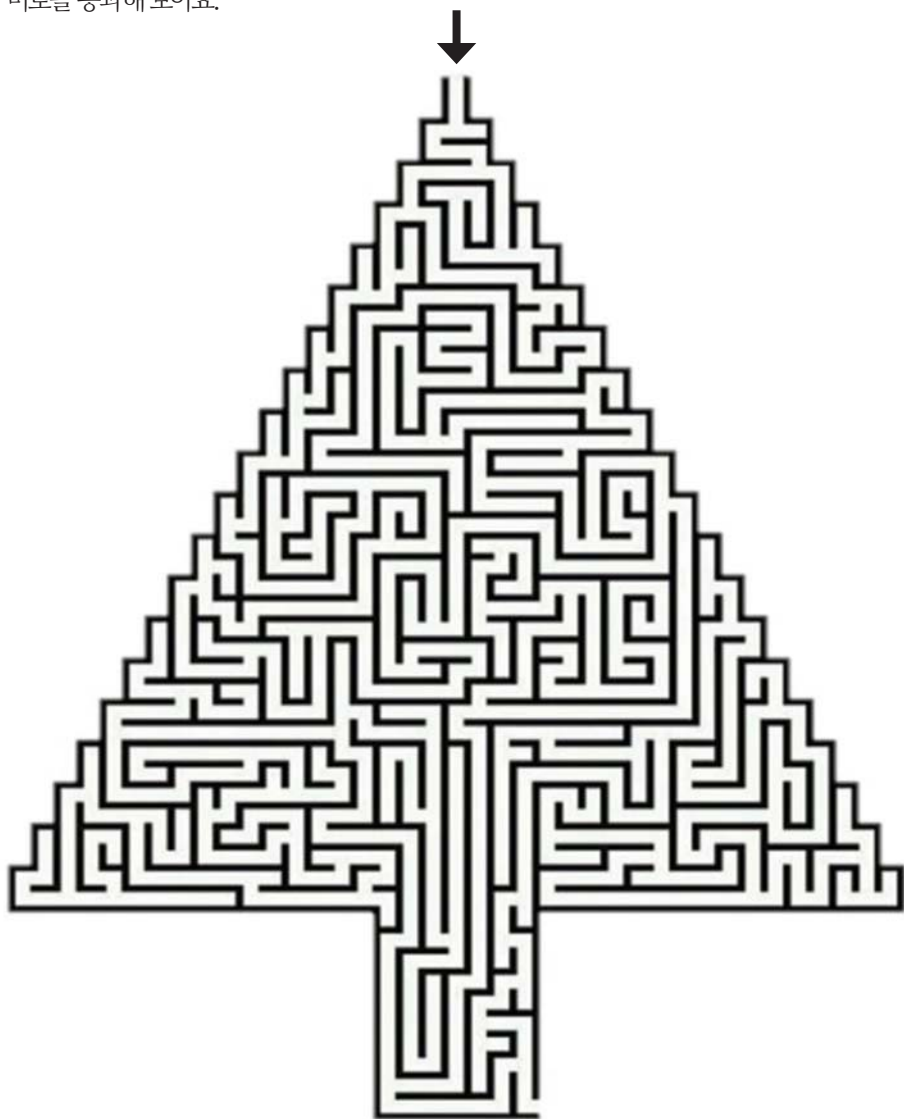
틀린 그림 찾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에 올려드리는 주기도문 이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미로 찾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미로를 지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6)”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죄의 미로를 통과해 보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누가복음 6장 31절 -



QT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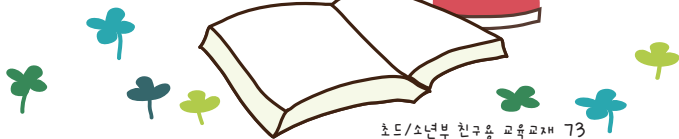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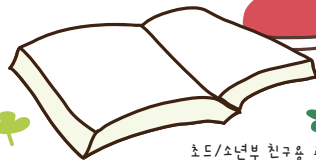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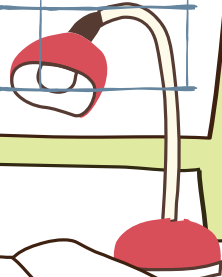
부 학년 반
이름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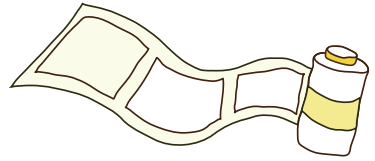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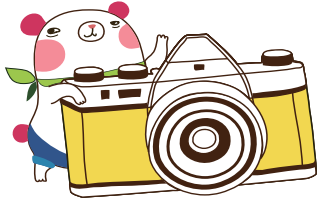


Bible study!

GOD'S TIME	1	2	3	4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위드 PHOTO



초등1부



3-4 최여민

초등2부



3-4 최여준

초등2부



3-11 마예빈

초등2부



4-13 김윤후



9월 둘째 주(9/9)

상황 1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상황 2

앞에 가던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상황 3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넘어졌을 때

상황 4

할아버지/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9월 셋째 주(9/23)

나는 '세상의 빛' 이에요



